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6.(목) 12:00 배포 2026. 11. 26.(목) 10:00

’26년 3분기 가계소득 +0.8% 증가

- 임금근로자 증가,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 증가
- ’25.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저효과로 이전소득 감소
- 가계소비지출 증가, 처분가능소득 · 흑자액 감소

’26.3/4분기 가계소득은 임금근로자 증가, 임금 상승, 추석 상여금 등 영향으로 **근로소득**(+3.6%)은 증가, 추석명절에 따른 영업일수 축소,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**사업소득**(△1.4%)·**이전소득**(△8.5%)이 감소하며 **총소득**이 **+0.8% 증가**[13분기연속]하였다. 특히, **공적이전소득**의 경우 **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기저효과**가 여타 공적이전소득 증가효과(국민·기초연금, 아동수당,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등)를 상쇄하며 **△15.4% 감소**하였다.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**실질소득**은 **△2.1% 감소**하였다.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’25.3/4)3.5 (4/4)4.0 (’26.1/4)2.4 (2/4)4.5 **(3/4)0.8**
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’25.3/4)1.5 (4/4)1.6 (’26.1/4)0.4 (2/4)1.5 **(3/4)△2.1**
** 항목별 소득(만원) : (근로)348.7<+3.6%> (사업)97.5<△1.4%> (이전)84.5<△8.5%>
*** 공적이전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**(’25.3/4)40.4** (4/4)5.4 (’26.1/4)7.8 (2/4)27.6 **(3/4)△15.4**

2~5분위 가구 소득이 **증가**한 가운데, **1분위 가구**(△2.7%)는 **근로**(△9.2%)·**이전**(△2.1%)**소득**이 **감소**하며 **총소득**이 **감소**하였다. **5분위 가구**(+1.4%)는 **근로**(+4.9%)**소득**이 **증가**하며 **총소득**이 **증가**하였다.

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전체)+0.8 (1분위)△2.7 (2)+1.7 (3)+0.5 (4)+0.3 (5)+1.4
1분위 항목별 소득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근로) △9.2 (사업) 7.8 (이전) △2.1
5분위 항목별 소득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근로) 4.9 (사업) △3.5 (이전) △19.9

가계소비지출은 **교통·운송**, **주거·수도·광열**, **식료품·비주류음료** 등을 중심으로 전체 **+2.9% 증가**하였으며,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**실질소비지출**은 **보합세**(0.0%)를 보였다. **처분가능소득**은 **△1.7% 감소**하였고, **흑자액**도 **△11.2% 감소**하였다.

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– 비소비지출 /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– 소비지출

소득 5분위배율은 **추석이동**('25 10월 → '26 9월)에 따른 **3분기 상여금 지급**, **민생쿠폰** ('25.3분기) **기저효과** 등 영향으로 **5.39배**로 전년동기대비 **상승**(+0.32배p)하였다. 다만, 분기별 가구소득은 **계절성, 변동성** 등으로 **가계동향**의 **5분위 배율**을 통해 소득분배를 분석하는 것은 **주의**가 필요하며, **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**는 **가계금융복지조사**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.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(배, 3분기) : ('22)5.75 ('23)5.55 ('24)5.69 ('25)5.07 **('26)5.39**

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**모두의 성장**을 위해 **3대 민생 프로젝트** 선도적 추진 등을 통한 **양극화 대응** 및 **민생안정에 총력**을 기울이는 한편, 3대 메가 프로젝트, 7대 SEED, 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, 서비스산업 육성 등 **성장저변 확대**를 위한 **노력**도 **지속**할 계획이다.

※ 상세한 분석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민생경제국 복지경제과	책임자	과 장	정미현 (044-215-2850)
		담당자	사무관	김나윤 (kny218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별 첨 **'26.3/4분기 가계동향 상세 분석**

전체 가구소득

□ **(총소득)**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**548.0만원**, 전년동기대비 **+0.8% 증가**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3.5 (4/4)4.0 ('26.1/4)2.4 (2/4)4.5 **(3/4)0.8**

○ **물가상승률**을 감안한 **실질소득 △2.1% 감소**

* 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1.5 (4/4)1.6 ('26.1/4)0.4 (2/4)1.5 **(3/4)△2.1**

** 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2.0 (4/4)2.4 ('26.1/4)2.1 (2/4)3.0 **(3/4)2.9**

□ **(소득항목별) 근로소득 증가, 사업소득 · 이전소득 감소**

* 항목별 소득(만원) : (근로)348.7<+3.6%> (사업)97.5<△1.4%> (이전)84.5<△8.5%>

○ **(근로소득) 임금근로자 증가, 임금 상승, 추석이동**('25 10월 → '26 9월)에 따른 **3분기 상여금 지급 등 영향**으로 **3.6% 증가**

* 근로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1.1 (4/4)3.9 ('26.1/4)0.3 (2/4)0.8 **(3/4)3.6**

** 임금근로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25.3/4)31.4 (4/4)27.3 ('26.1/4)14.6 (2/4)△7.9 **(3/4)7.3**
사업체임금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0.4 (4/4)4.7 ('26.1/4)3.4 (2/4)2.1 **(7월)2.5 (8)3.9**

○ **(사업소득) 추석명절**에 따른 **영업일수 축소**(△3일) 등 영향으로 **감소**

* 사업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0.2 (4/4)3.0 ('26.1/4)2.6 (2/4)3.8 **(3/4)△1.4**

** 서비스업생산지수경상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4.4 (4/4)3.8 ('26.1/4)6.0 (2/4)8.4 **(3/4p)7.4**
소매판매액지수경상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3.3 (4/4)3.2 ('26.1/4)5.0 (2/4)6.0 **(3/4p)2.7**

○ **(이전소득*) '25.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** 기저효과**가 여타 **공적이전 소득 증가 효과***를 상쇄**하며 **감소**

* 이전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17.7 (4/4)7.9 ('26.1/4)9.7 (2/4)20.4 **(3/4)△8.5**
↳공적이전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40.4 (4/4)5.4 ('26.1/4)7.8 (2/4)27.6 **(3/4)△15.4**

** (1차7~9월) 기본15, 차상위30, 수급자40만원, 비수도권+3만원 (2차9~10월) 소득하위 90%, 10만원

*** 국민연금·기초연금 수급액 2.1% 인상('26년), 아동수당 연령 확대('26.4월, 7세이하→8세이하),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방정부 확대('26.8월, 10개→17개) 등

분위별 소득

□ **1분위 소득 감소, 2~5분위 소득 증가**

* 분위별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전체)+0.8 (1분위)△2.7 (2)+1.7 (3)+0.5 (4)+0.3 (5)+1.4

○ **(1분위) 근로소득**(△9.2%)·**이전소득**(△2.1%) **감소**하며 **총소득 감소**

* 1분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11.0 (4/4)4.6 ('26.1/4)2.7 (2/4)7.5 **(3/4)△2.7**
↳ 소득원천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근로)△9.2 (사업)7.8 (이전)△2.1 <(공적)△8.3 (사적)25.3>

○ **(5분위) 근로소득**(+4.9%) 증가하며 **총소득 증가**

* 5분위 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0.4 (4/4)6.1 ('26.1/4)4.2 (2/4)3.8 **(3/4)1.4**
↳ 소득원천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근로)4.9 (사업)△3.5 (이전)△19.9 <(공적)△29.4 (사적)10.5>

지출·가계수지

□ **(비소비지출)** 추석**가구간 이전지출,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 증가**(117.4만원, 11.0%)

* 비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△0.9 (4/4)6.5 ('26.1/4)1.2 (2/4)1.9 **(3/4)11.0**
비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가구간이전)30.0 (이자)11.0 (경상조세)8.0

□ **(소비지출) 교통·운송**(+9.6%), **주거·수도·광열**(+4.9%), **식료품·비주류음료**(+3.3%) 등 **증가**하며 **소비지출 증가**(303.0만원, 2.9%)

* 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1.3 (4/4)3.6 ('26.1/4)5.3 (2/4)3.4 **(3/4)2.9**
소비지출 주요 비목별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교통·운송)9.6 (주거·수도·광열)4.9 (식료품·비주류음료)3.3

○ **물가상승률**을 감안한 **실질소비지출**은 보합(0.0%)

* 실질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△0.7 (4/4)1.2 ('26.1/4)3.1 (2/4)0.4 **(3/4)0.0**

□ **(가계수지) 처분가능소득 감소**(430.6만원, △1.7%), **흑자액 감소**(127.6만원, △11.2%)

* 처분가능소득 = 총소득 – 비소비지출 /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– 소비지출
** 처분가능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4.6 (4/4)3.4 ('26.1/4)2.7 (2/4)5.2 **(3/4)△1.7**
흑자액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12.2 (4/4)2.7 ('26.1/4)△3.1 (2/4)9.6 **(3/4)△11.2**

소득분배

□ **(5분위배율)*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**5분위배율**은 **5.39배**로 전년동기대비 **상승**(+0.32배p)

※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= (시장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공적이전지출) / $\sqrt{\text{가구원수}}$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(배, 3분기) : ('22)5.75 ('23)5.55 ('24)5.69 ('25)5.07 **('26)5.39**

※ 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, 변동성 등으로 가계동향의 5분위 배율을 통해 소득 분배를 분석하는 것은 주의 필요
→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 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(연간지표)를 통해 판단

2 평가 및 대응방향

□ (평가) '26.3분기 총소득 증가, 물가상승 등으로 실질소득·소비 감소

○ **(소득·소비)** 우리경제 성장세에 따라 '26.3분기 **가계 총소득**은 13분기 연속 **증가**하였으나,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**실질소득 감소**, **실질소비지출 보합**

* 총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3.5 (4/4)4.0 ('26.1/4)2.4 (2/4)4.5 **(3/4)0.8**
실질소득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1.5 (4/4)1.6 ('26.1/4)0.4 (2/4)1.5 **(3/4)△2.1**
실질소비지출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 : ('25.3/4)△0.7 (4/4)1.2 ('26.1/4)3.1 (2/4)0.4 **(3/4)0.0**

○ **(소득분배*)** **추석이동**('25 10월 → '26 9월)에 따른 **3분기 상여금 지급**, **민생쿠폰**** ('25.3분기) **기저효과** 등 영향으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**5분위배율 상승**

*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(배, 3분기) : ('22)5.75 ('23)5.55 ('24)5.69 ('25)5.07 **('26)5.39**

** (1차 7~9월) 기본15, 차상위30, 수급자40만원, 비수도권+3만원 (2차 9~10월) 소득하위 90%, 10만원

□ (대응방향) 모두의 성장을 위해 3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통한 양극화 대응 및 민생안정에 총력 + 견조한 성장세 下 성장저변 확대 노력 가속화

○ 물가상승 압력,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에 대응하여 **성장의 온기**가 **경제 전반으로 확산**될 수 있도록 **민생안정**과 **양극화 완화 노력 강화**

- 취약계층의 **생활안정**을 위해 **기초생활보장제도** 및 **긴급복지 강화**

* '27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(4인가구 6.70%), 즉각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'우선드림(30만원)' 신설('27) 등

- **「양극화 대응 TF」**통해 **핵심 제도개선·지원 과제**를 **적극 발굴·추진**하는 한편, **일자리·서민금융·주거 3대 민생 프로젝트**도 **선도적**으로 **추진**

○ 수출·투자 등 **견조한 성장세** 下 3대 메가프로젝트, 7대 SEED, 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, 서비스산업 육성 등 **성장저변 확대 노력 가속화**